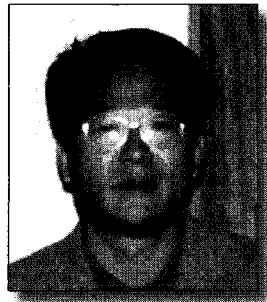


# 녹용과 자록생산에 심혈 기울여야 할 5월

- 녹용 절각 잘못하면 질병으로 이어져, 영양관리도 중요 -



유 일 준 수의사  
(유일동물병원장)

4월은 아름다운 달이다. 날씨도 그렇고 일조량도 많아져 생리학적으로도 의욕이 돋는 시기이다. 사슴사육농가에서는 낙각 후 돌아 나오는 녹용을 바라보노라면 희망에 부풀기도 한다.

지난해 태어난 숫사슴들의 첫발을 쳐다보면서 능력이 있어 보이는 녀석에게는 부푼 꿈을 엮어 보기 마련이다. 육성록이나 성록의 녹용생장시점은 정말 꽃봉오리보다 아름답다.

4월의 진료는 사고에 의한 녹용골절, 포피염, 식욕부진, 발굽질병이었다.

탐스럽게 올라오던 녹용이 우리의 철조망이나 파이프에 걸려서, 또는 관리의 편리를 위해 합사해 놓은 상황에서 녹용이 부러지거나 각좌가 부러지는 속상한 경우가 있다. 또는 녹용이 자란 상태에서 질병이 있어 부득이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마취에 의해 넘어지거나 마취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녹용이 부러지거나 손상을 입을 수도 있다.

녹용이 반쯤 부러졌을 때 - 즉 약간만

흰 상태에서 녹용 피부가 찢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3일 정도 기다려 보아서 녹용에 약간의 부종과 30°이내의 휘어짐이 있을 때는 그대로 방치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완전히 녹용이 휘어지고 통통 부어오르면 절단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다. 즉 자르고 재생을 기대해야 한다. 녹용이 부러지고 통통 부은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면 염증에 이어 부러진 녹용이 썩으면서 패혈증으로 인해 먹이를 먹지 않거나 체온이 상승되고 호흡이 빨라지게 된다. 또는 녹용이 기형이 되어 녹용 생산량의 감소로 이어지며 각관에 이상 비대를 일으켜 과상망측한 녹용이 되고 만다. 아무튼 5cm 이상 자란 녹용은 다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최상책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합사시에 힘의 균형 시기를 고려해야 하고 사육시설에 의한 부상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사슴장 주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사슴이 놀라지 않도록 사전에 세밀한 준비가 필수적이다.

## ■ 포피염의 발생과 치료

포피염의 발생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그 원인과 진료 방법에 대하여는 여러번 소개된 바 있다. 뇨석증과 관련이 있을 수 있고 신장기능의 이상, 단백질의 부적절한 급여, 수질불량, 비타민 또는 광물질의 결핍, 그리고 체질과도 연계되어 발생하는데 포피염이 발생되면 그 정도에 따라 녹용의 생산량 감소도 비례한다. 정이나 녹용이 달린 상태에서 치료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녹용 절각시에 아예 수술을 해 주는 것이 최상책이



▲ 극심한 포피염에 피부 천공된 사슴

다. 포피염은 한번 발생하면 매년 재발되는 것이 상례이다. 예방법은 위에서 열거한 요인들을 제거하는 것이겠으나 말처럼 쉬운 것은 결코 아니다. 포피염이 있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녹용생산을 포기하는 것과 같으며 사슴의 수명을 줄이는 것이다. 포피염은 사슴사육농가에서 각별히 신경써야 할 부분 중 하나임에 틀림없다.

## ■ 숫사슴의 식욕부진

숫사슴의 식욕부진 원인에는 호르몬밸

런스의 혼란, 위장기능의 이상, 사료급여의 실패, 사슴 털이나 비닐 또는 이물질에 의한 것 등 그 원인의 수없이 많으나 본고에서는 호르몬밸런스 혼란과 사료급여의 실패에 의한 숫사슴의 식욕부진에 대한 부분을 기술한다.

일조시간과 기온의 변화는 호르몬의 변화를 가져와 낙각을 일으키고 이어서 녹용을 성장케 하는데 여성호르몬의 이상분비나 남성호르몬의 급작스런 감소는 낙각장애가 발생되고 뇌하수체후엽 호르몬의 분비이상을 가져와 식욕부진의 원인을 제공한다. 이는 시상하부호르몬의 이상 분비로 이어져 온도 변화와 일조량 변화에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혈액검사로 원인을 밝혀낼 수 있다.

사료급여의 실패에 의한 식욕부진은 대부분 숫사슴에게 녹용생산의 향상을 위해 갑작스럽게 배합사료를 증량 급여하거나, 어린 풀의 새싹을 많이 주거나, 나무의 새순을 갑자기 먹일 때 단백질의 이상 소화에 의한 맹장 기능의 저하와 관련되는 것이 일반적인 원인이다.

갑작스런 배합사료 증량 급여에 의한 식욕부진은 위장의 과산증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중조(일명 소다)를 1일 100~150g을 경구투여하고 제산제를 주사해주고 유산균 제제를 경구 투여함이 권장된다.

대변배설이 원활치 않아 식욕부진이 발생기도 한다. 대변배설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엘크 성록은 200ml, 레드 성록은 100ml, 꽃사슴 성록은 70ml의 식용유

를 강제투여하고 설파제와 장운동 촉진제를 투여한다. 식용유를 강제 투여할 때 폐로 식용유가 넘어가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 ■ 녹용 절각과 마취

녹용 절각을 위한 마취는 너무나 많은 정보를 제공했기에 본고에서는 유의사항



▲ 마취제는 안전성이 최우선. 사진은 사슴이 마취된 상태

중 필수적인 것만 추려보려 한다. 마취제는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고 사용자의 마취기술에 따라, 마취시간에 따라, 마취제 특성을 숙지한 후 사용해야 한다. 절각과 동시에 발굽손질, 포피염 치료를 결합 때에는 마취시간이 긴 마취제를 사용하고 녹용만 절각하고 채혈하지 않을 때에는 마취 지속시간이 짧은 마취제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고에서는 사용목적에 따른 마취제의 상품명은 오해를 피하기 위해 기술하지 않는다.

또한 마취제를 사용하는 방법 중 마취제로 마취를 시도했으나 마취가 잘 안되면 무리하지 말고 성분이 다른 마취제로 마취를 시도함이 요구된다. 정상적인 용량에 의해서도 마취가 잘 안되는 사슴은 오

기로 끝가지 마취를 시도하지 말고 한발 물러서 하루나 이틀 후로 마취를 미루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다. 무리한 마취는 사고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 ■ 지혈과 지혈대

절각 후 지혈은 녹용절단면을 소독제로 소독한 후 염화제 2철, 본왁스 등으로 지혈을 시도한다. 그러나 염화제 2철이나 본왁스만으로 지혈이 아니 되므로 지혈대를 쓰게된다.

지혈대는 너무 가늘지 않은 것을 쓰며 각좌 부분은 2회 정도 동이고 녹용부분도 2회 정도 동여준다. 약간의 출혈은 너무 신경 쓰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약간의 출혈까지도 막기 위해 과도하게 각좌를 동여매면 각좌의 괴사를 초래하여 절각 후 패혈증을 일으키거나 인후두마비를 일으켜 사슴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지혈대는 지혈 후 8~24시간 내에 제거되게 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지혈대가 너무 빨리 풀리면 재출혈이 일어나 안쓰럽고 2일 이상 지혈대가 안 풀리면 통증으로 사슴이 고통을 받으며 각좌의 염증으로 다음해의 녹용생산 저하를 유발시킬 수 있다. 더욱 심각한 지혈대의 풀림 지연은 철망이나 파이프에 각좌를 비벼대거나 뒷발로 각좌를 비벼대 각좌염, 골수염, 인후두마비증 등의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

아무튼 지혈대는 단단히 매되 쉽게 풀릴 수 있도록 매는 것이 기술이라 하겠다. 지혈대 제거를 위해 사슴장 모서리

에 지혈대 제거용 로프를 매어주는 것도 매우 편리한 방법이다.

### ■ 분만 예정의 암사슴 관리

과잉 비육된 암사슴은 난산의 위험이 크므로 배합사료량을 줄여주되 건초는 비타민, 광물질과 함께 정상 급여한다. 너무 급하게 체중을 줄이려하면 부작용이 더 크므로 넓은 운동장에서 충분한 운동을 하게 하거나 아침저녁으로 강제로 운동을 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너무 마른 어미 암사슴의 분만은 비교적 쉬우나 분만 후에 젖이 모자라거나 허약한 새끼를 분만하게 되므로 영양보충에 힘써야 한다. 어미가 너무 마른 상태에서 분만되면 새끼 사슴이 선천적으로 허약하여 설사를 일으킬 확률이 매우 높아 그만큼 새끼 사슴이 죽을 확률이 커진다. 지금현재 어미 사슴이 너무 말랐다면 소화장애가 일어나지 않는 선까지 배합사료를 증량해 주면서 필수적으로 비타민제제와 유산균제제 그리고 미량광물질을 급여함이 필수적이다. 또한 신생자육만이 드나들면서 먹고 쉬고 할 수 있는 자육관리실의 설치도 빼놓을 수 없는 사항이다. 자육관리실의 유무는 자육의 성장과 녹용 생산 성적을 좌우한다. 필자의 목장에 있는 자육들이 다른 사슴목장보다 비교적 크고 건강한 것은 별도의 자육관리실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내에 구제역이 발생하였습니다. 구제역은 국제간의 교역에도 절대적인 영



▲ 모체내에서 부패된 새끼사슴을 제왕절개로 적출해낸 모습  
 향을 미치는 무서운 전염병입니다. 사슴 사육자 여러분들도 예방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를 사슴관리인으로 채용할 때에는 최근에 입국한 중국인, 몽골인, 아프리카인, 그리고 인도인은 채용에 앞서 그들의 의복과 소지품을 철저히 소독해야 합니다. 한국에 1년 이상 체류한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소독을 한 후 작업에 동참케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그들 나라로부터 우송되어 오는 소포와 편지도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구제역은 나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지역 축산, 나아가 국내 축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야기시키는 가축전염병입니다. 구제역 예방에 최선을 다합시다.

※ 지난 4월17일 2차 마취 세미나를 물심양면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5월10일에 제 3차 세미나를 마치고 다가오는 8월28일 오후 1시부터 가을철 숫사슴관리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민국양**

〈필자 연락처 : 011-423-5297〉